



2018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지난 1월 25일과 26일, 이들 동안 2018학년도 수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우리대학의 2018년 첫 행사로서, 18학번 수시 신입생들이 공식적으로 참석한 첫 자리가 됐다. 25일에는 인문예술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소속 수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26일에는 디자인대학 및 IT공과대학 소속 수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참가 대상은 달랐지만 행사 내용은 동일했다.

행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성비전 및 트랙

제도 안내 ▲장학 안내 ▲해외인턴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소개 ▲해외봉사·데일카네기 등 기타 안내 ▲학사 일정 안내 ▲학술정보관 소개 ▲홍보대사 '하랑'의 대학생활 꿀팁 소개 등 신입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어 졸업생 특강, 무용학과 공연, 동아리 공연 등도 진행됐다.

2부는 상상관 지하 1층에서 신입생들이 자유롭게 트랙별 부스를 탐방하는 방식으로 꾸며졌다. 이 행사에서 각 트랙은 부스를 설치해 신입생에게 트랙 교육목표와 교과과정, 관련 진로 등을 소개하고 홍보했다.

행사장에는 트랙별 부스뿐만 아니라 교육역량개발센터·국제교류협력팀·취업창업지원팀·학생장학팀 등 행정부서별 부스도 함께 준비됐다. 또한, 각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스탬프를 모은 신입생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교내 곳곳에서 동아리 공연, 메이크업 및 헤어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고성현(인문 1) 신입생은 "평소 트랙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직접 와서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어 보니 트랙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잘 알게 됐다. 앞으로 대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오리엔테이션 참석 소감을 밝혔다.

오민서(사회과학 1) 신입생은 "트랙제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떤 트랙이 있는지 자세히 알게 돼서 좋았다. 경영 트랙과 회계 트랙을 들어볼까 생각 중"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비단 신입생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신입생과 재학생이 처음 만나고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행사에 참여해 신입생을 인솔한 손병우(사회과학 2) 학생은 "작년에는 신입생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올해는 선배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내가 후배들을 이끌다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한편, 2018학년도 정시 신입생과 전체 학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은 지난 2월 23일과 24일에 각각 실시됐다. 정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는 먼저 열린 수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은 학교 소개 및 교내 프로그램 소개, 교수와의 대화 등으로 구성됐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지면안내

대학생활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입생 입학사전

02



캠퍼스 안내
캠퍼스 안내서,
한술랭 가이드 등

03



학보사 특집
한성대신문사
전격 해부★

04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한성대신문사 45기 수습기자 모집

한성을 비추는 한성인의 언론, 한성대신문사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요활동

- 아이템 기획안 작성
- 아이템 회의
- 레이아웃 디자인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 사진 촬영
- 기사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작업
- 신문 배부
- 블로그 기사 업로드
- 페이스북 카드뉴스 제작 및 업로드
- 취재처 신문 발송
- 평가 회의

활동혜택

- 활동비 및 원고료 지급
- 학기당 비교과 100pt
- MT·워크숍 등 단합행사
- 3식(회식·배달음식·간식)
- 유명인과의 만남
- 언론사·잡지사 스펙
- 개인 책상 및 PC 제공
- 개인 사물함 제공
- 명함 및 기자증 지급
- 복합기 무료 사용
- 교육연수 등 프로그램 지원
- 퇴임 시 금반지 증정

모집대상

본교 재학생(전공 무관)

모집기간

2월 19일(월)~3월 16일(금)

지원방법

- 한성대신문사(우촌관 중문 기업은행 건물 2층)에 직접 방문해 지원서를 받거나 블로그(http://blog.naver.com/hansungnews)에서 다운
- 지원서는 직접 또는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문의사항

- TEL. 02)760-4186
- 이주형 편집국장 010-9286-7531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입생 잡학사전

<편집자주>

내 손으로 짠 예쁜 시간표와 처음 겪게 될 공간시간. 공허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면, 누구보다 알찬 학교생활을 보내보자. 여기 18학번을 위한 꿀팁을 모았다. 반짝이는 한성인이 되기를 바라며 아디오스.

비교과포인트 침투력 무엇?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학한 대학교. 단순히 학점만 채운다고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과포인트(High-Success Point)제도 때문이다.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비교과포인트'를 총 800포인트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름도 생소한 비교과포인트를 800포인트나 취득해야 한다니,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포인트를 취득해야하나 걱정이 앞설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비교과포인트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과 교외 비교과활동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은 본교 인재상에 맞는 핵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각종 활동을 통칭한다.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특강과 워크숍 및 현장체험활동, 소모임 및 멘토링, 교내 공모전 등이 이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이 1학기에 주최하는 '한성인 글쓰기 대회'에 참여하면 최대 60포인트를, '한성대신문사'에 입사해 기자로 활동하면 학기당 100포인트(총 400포인트)를,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입상담 및 심리검사'를 받으면 시간당 5포인트(학기당 최대 60)를 취득할 수 있다.

교외 비교과활동은 대회 및 공모전 참가, 각종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참여, 창업,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TOEIC·HSK·JPT

등 어학관련 자격증을 따면 학기당 최대 80포인트(어학시험별 지급 포인트 상이)를, 학과사무실 및 교육혁신지원팀에서 승인한 대회 및 공모전에 참가하면 대상 수상자 기준 100포인트를 취득할 수 있다. 교외 비교과활동에 참여한 후, 포인트 신청기간 내에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포인트 적립 승인이 절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교과포인트는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서 신청·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교육혁신지원팀(02-760-5816)에서 할 수 있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국제교류 프로그램, 미리 알고 먼저 준비하자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해외 유학의 로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국적인 캠퍼스에서 책을 끼고 걷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법. 이러한 로망을 충족하면서도 스펙을 쌓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2학년을 마치고 나서야 지원할 수 있지만, 학점, 어학점수 등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편이 낫다.

디즈니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플로리다 주립 대학에 약 5,000달러(한화

대략 500만 원)를 내면 인턴 기간 동안 학점 이수도 가능하다. 선발만 되면 학교가 왕복 항공비를 90% 이상 지원해주고, 우리학교 등록금도 80% 감면해주니, 금전 부담을 덜 수 있다. 인턴 기간 동안 시간당 약 9달러의 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학점도 따고 돈도 벌고, 해외 인턴 스펙까지!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다.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외 대학에서 2학기 정도 수업을 들으며 전공·교양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선발될 경우 항공비는 90% 이상 지원되고, 해당 학교와 우리학교의 수업료가 일정 부분 감면되므로 국내

에서 공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비용으로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 어학연수는 우리학교와 협약을 맺은 외국 대학에서 교양 수업과 어학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인턴십 등 해외 인턴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국내의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KOTRA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이 해외무역관 인턴으로 선발·파견하는 제도다. 해외무역관으로 선발되면 주로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현지 시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실력도 통장잔고도 쑥쑥! 일석이조 장학금 제도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학교에는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학금이 있다.

교육장학금은 학생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장학제도다. 교육장학금은 학생들이 교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교외에서 외국어시험, 자격증시험 대비 등 교육훈련성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 누구나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각종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액을, 외국어학원이나 자격증학원 등 교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비용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졸업 전까지 1인당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학년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 알아두자. 1학년 때는 30만 원, 2학년 때는 50만 원, 3·4학년 때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장학금 신청서, 수강증, 카드매출전표 등 서류를 구비해 취업지원팀(상상관 지하 1층)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혹시 대학생활에 심취한 나머지 F학점을 세 번 이상 맞아 학사경고를 받게 되더라도 좌절하지는 말자.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이 있다. 성적향상장학금이 바로 그것이다. 성적향상장학금은 학사경고자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해당 학생들은 교육역량개발센터가 운영하는 3개 프로그램 중

한 가지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 학습능력향상튜터링, 학습컨설팅, 학습법워크숍 중 하나를 수료한 후 다음 학기 평균 학점이 향상되면, 오른 성적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튜터링 활동을 해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튜터링이란 외국 유학생들의 '튜터'가 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략 8-9주 정도 활동하며, 장학금은 시간당 2만 원으로 계산한다. 이 튜터링은 일주일에 최대 4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으므로, 학기당 최대 72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모르고 넘어가기 쉽지만, 지나칠 수 없는 팁들

이번에 소개한 팁들은 학교생활을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다. 앞서 소개한 장학금 제도와 같은 굵직한 정보들은 이미 홍보가 잘 돼있어 조금만 알아봐도 손쉽게 입수할 수 있지만, 대학생활의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디테일에 있다. 노트북 대여, 그룹스터디실 활용법 등 소소하고 일상적인 정보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지도, 솔기운 오른 선배의 입에서 튀어나오지도 않는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작지만 쓸쓸한 정보들로 대학 생활에서 반걸음 앞서보자.

노트북 대여 제도를 이용하면 우리학교 학생 누구나 노트북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상상관 3층에 위치한 통합 기자재실에 방문해 신분증을 맡기고 기기를 제공받으면 된다. 학기 중에는 오전 9시부터 대여할 수 있으며, 당일 오후 9시 30분까지 노트북을 반납하면 신분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시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향후 6개월 동안 대여가 중단되니 주의하자.

수업자료나 레포트를 제출해야할 때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미래관 지하 1층과 탐구관 1층에 자리한 실습실에는 흑백·컬러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다. 공대 트랙이라면 공학관 트랙별 실습실을 방문해 프린터를 이용해도 좋다. 실습실 컴퓨터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창이 하나 뜨는데

그곳에 학번,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프린트할 수 있다. 매학기 1인당 3,000원이 자동으로 충전되며, 잔액이 부족하면 실습실 창구에서 충전하면 된다.

조별과제 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세미나실과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을 이용하자. 상상관 지하 2층에 위치한 세미나실은 4명 이상 모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다. 세미나실이 만실일 때는 그룹스터디실을 이용하면 된다. 그룹스터디실은 학술정보관 3·4·5·6층에 있으며, 각 층 안내데스크에 조원 1명이 학생증을 맡기면 최대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신입생을 위한 캠퍼스 안내서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낙산관
운동이 좋아한다면 이 건물에 들러보자. 이곳에는 체육관과 체력단련실이 위치해있다. 체육관실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공휴일 휴무, 샤워실도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학생증이 있어야 하고, 운동복, 운동화, 세면도구는 지급해주지 않으므로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상외관·이성관
창의관은 학생수업을 이용하기 위해 많이 가게 될 장소다. 우리대학 학생상담은 작년 2학기에 담당 업체가 바뀌면서 학생비가 좋은 풀타임 상담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창의관 비로 부엌에는 인성관이 연결돼 있다. 이곳에는 대부분의 실내 동아리실이 위치해 있어 동아리 활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1층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분과실, 다목적실, 샤워실 등이 있다.

연구관
교수님들의 요람. 교수님이 강의 외 시간에 주로 상주하는 연구실이 밀집돼 있어 학과를 다니다보면 가끔 들르게 되는 장소다. 총이다. 엘리베이터 옆에 교수님 이름과 연구실 위치가 적혀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전실로 사용하는데 졸업논문전시를 비롯한 각종 전시가 열린다. 연구용 옥상에는 옥상정원도 있으니 한번 신재해 보는 것도 좋다.

탐구관
공학대학과 예술대학 실습강의를 제외한 여러 강의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르는 장소 중 하나로 꼽힌다. 지하 1층에는 매점이고, 2층에는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실습실이 있다. 강의 시작 전에 이곳에서 강의 자료를 프린트하는 경우도 많다. 연구용과 마찬가지로 탐구관 옥상도 정원으로 꾸며놓았다.

광학관·시정관
공학관은 공대 학우들의 보금자리다. 공대실습실 강의실 화해실이 전부 모여 있다. 공학관은 A동과 B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매점은 A동 1층에 있다. 지정관은 화해와 학생들의 아이디를 처리해 준다. 1층에 위치한 체육 실습실에는 탁구대기 마련돼 있다. 단, 탁구용 품대에는 창의관에서 체육 실습실 대어는 우촌관에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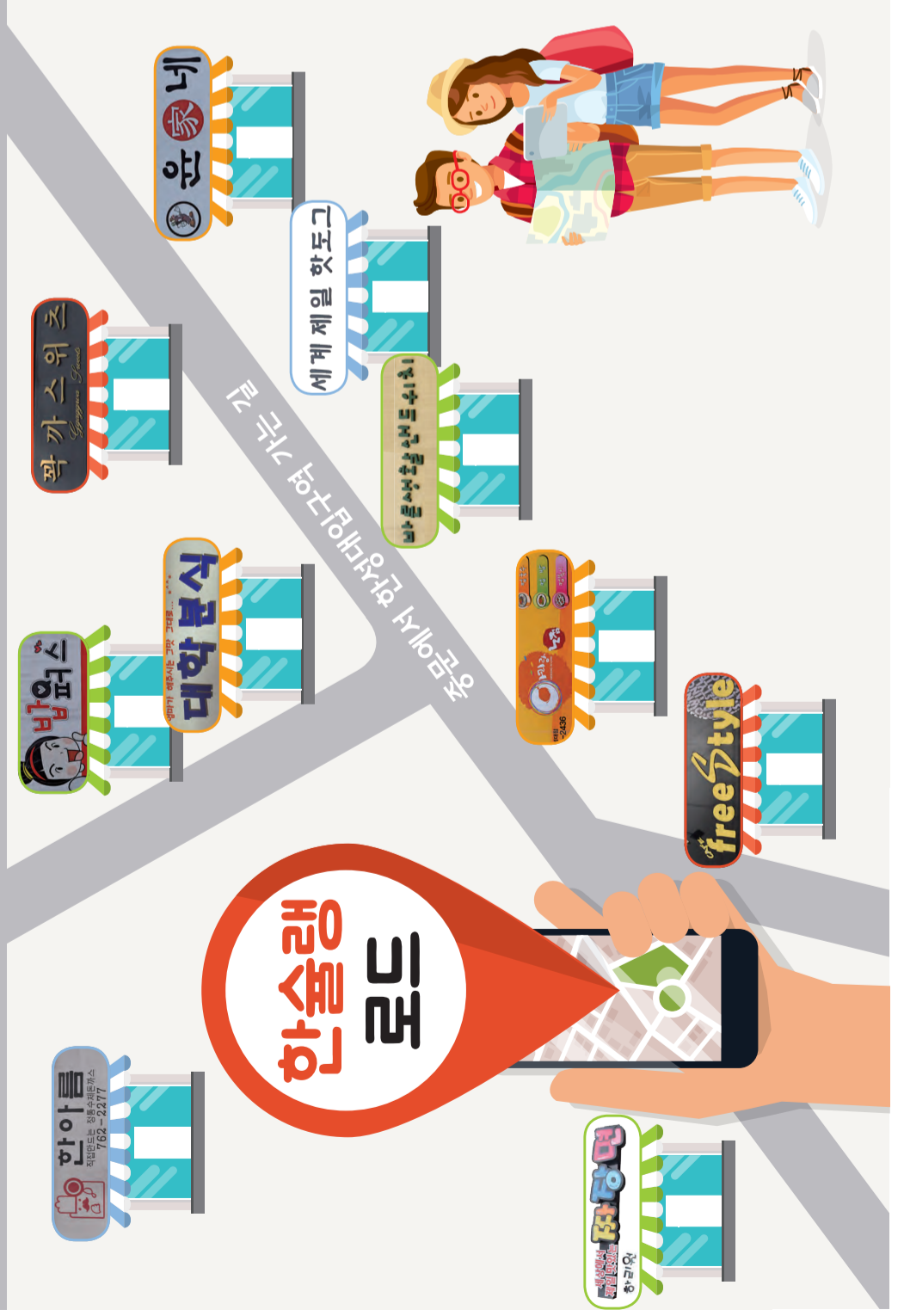
진리관
진리관에는 시설지원팀, 입학홍보실 등의 행정부서, 패션디자인학과 실습실 등이 위치해 있다. 2층에는 학생 복지팀을 담당하는 학생복지위원회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있다. 진리관은 여타 건물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화장실이 한쪽 복도 끝에만 있으며, 2·3층에는 여자화장실, 4층에는 남자화장실이 있다. 또, 다른 건물과 달리 엘리베이터도 없다.

우촌관·미래관
우촌관에는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학회실이 모여 있다. 3층에는 학생들의 학사행정(휴, 복학, 장학금, 수강신청 등)을 담당하는 학사지원팀이 있다. 우촌관은 미래관과 연결돼 있는데, 이 부근에는 학생상담센터와 인쇄, 제본 등을 할 수 있는 출력센터가 있다. 미래관의 대부분은 학술정보관, 열람실로 쓰이고 있다.

상상관
교내 행정사무실 대부분이 상상관에 있고, 탐구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강의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1층에는 학생상담 및 있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실, 2층에는 카페 겸 상담인 팔각당 11층에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밀가목이 있다. 참고로 상상관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이니 흡연자는 이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의하자.



정문에서 내려가는 길(마을버스 다니는 길)



한술랭 가이드

hsupress

728 likes

#팍까스위츠 #마카롱 #디지털 #예약가능 #달걀

밥 배와 디저트 배는 다르다. 달콤한 디저트까지 먹어줘야 식사가 완성. '팍까스위츠'에서는 여러 종류의 마카롱을 하루 200개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다. 마카롱 외에 꿀칩, 머랭쿠키등의 디저트도 판매하고 있다. SNS로 그날 판매하는 디저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곳의 마카롱은 인기가 많아 금방 판매되는 예약하고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hsupress

283 likes

#아리랑 캠프 #불맛삼겹 #연어김밥 #한성대동문 #이리

'아리랑 캠프'는 가볍게 끼니를 때우기 좋은 곳이다. 우리학교 동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천 메뉴는 '불맛삼겹김밥'과 '연어김밥'이다. 특히 연어김밥은 우리학교 주변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다. 캠프 외에 국밥도 판매하고 있으니 따뜻한 국물 캠프 한 그릇 꼭꼭 먹어 보는 건 어떨까.

hsupress

1047 likes

#한아름 #복합메신 #1986 #강양식 #실습록네

우리학교 학생과 비슷한 가격에 조금 더 고급진 요리를 먹고 싶다면 '한아름'을 추천한다. 이 가게의 대표요리라고 할 수 있는 '복합메신'은 졸업한 학생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마성의 돈가스다. 신배에게 밥 얻어먹을 일 이 생기면 평소 눈독들이던 한아름에 들려 당상의 입맛을 꼭꼭 시켜보자.

한성대신문사 전격 해부★ 실체 공개해보니... '충격'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포도당과 카페인, 알코올이 있고, 피자과 치킨이 있다. 무엇보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동기들이 있다. 비록, 풍낭풍낭 사내로맨스는 없을 지라도 의리로 푹 푹 뭉친 전우를 얻어갈 수는 있다.”



전면 백을 받고 영혼이 증발한 학보사 기자의 모습. 왼쪽 귀퉁이의 익숙한 신문등이와 라꾸라꾸 간이침대가 눈에 띈다. (출처: JTBC)

“학보사? 그게 뭐데?” 학보사 기자로 지내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학보사 업무를 본업으로, 학업을 부업으로 삼고 마감 주에는 어김없이 밤을 새워가며 영혼을 갈아 넣어 신문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학보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 많다. “학보사가 뭐냐”, “동아리나 소모임, 그것도 아니면 스타디나”는 질문에 “응, 학보사는~”하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이젠 지겹다. 그래서 준비했다. 학보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당신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학교 학보사 ‘한성대신문사’를 탈탈 털어본다.

학보사가 뭐길래

먼저, ‘학보사’가 어떤 곳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국어사전에서는 학보사를 ‘주로 대학에서, 학보를 발행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학교신문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학보사 기자가 하는 일도 뻔하지 않은가. 당연히 신문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결코 단순하지는 않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신문 역시 당신의 손에 쥐여지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문이 당신의 손에 쥐여지기까지

첫 관문은 ‘아이템 전쟁’이다. 신문에서 기사의 소재를 ‘아이템’이라 부르는데, 아이템 회의는 그야말로 생존전쟁이다. 이때 기자들은 쉽고 재밌는 ‘꿀템’은 자신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남에게 떠넘기려 혈안이 된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회의에 불참한 기자가 있다면, 그 기자는 ‘헬퍼’가 열린다. 비유하자면, 수감신청을 까먹어서 모두가 피하는 ‘짜리’ 강의 들만 좇는 것과 같다.

첫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치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아이템을 정했으면 그에 걸맞은 취재원을 찾아서 연락하고 인터뷰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을 ‘컨택(Contact)’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여기사 두 번째 위기를 맞는다. 취재원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인터뷰를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학내에서 민감한 사안을 다룰 경우 더욱 그렇다. 기사 마감 날짜는 다가오지, 취재원은 연락두절이지, 기사는 똥줄이 타기 시작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마감 직전에 해당 아이템을 ‘부쉬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한다. 컨택에 성공해서 취재를 무사히

마쳤다면 반은 끝났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짜’다. 내가 쓴 초고가 편집국장의 손에서 ‘기사 첨삭’이라는 명분 아래 갈기갈기 찢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물론 찢기는 건 멘탈도 함께다. 그나마 빨간 줄만 그려져 있다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지만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전면 백(Back)’이라고 부른다. 전면 백을 받은 기자에게 답은 ‘밤샘’이다.

그래도 괜찮은 학보사

하지만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포도당과 카페인, 알코올이 있고, 피자과 치킨이 있다. 무엇보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동기들이 있다. 비록, 풍낭풍낭 사내로맨스는 없을 지라도 의리로 푹 푹 뭉친 전우를 얻어갈 수는 있다.

학보사 기자 생활이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면 거짓이다. 계좌에 찍히는 급여, 이력서에 적을 한 줄의 스펙처럼 물리적인 이득이 전부라면 진작 퇴사했을지도 모르겠다. 정작 기자들을 굴리는 궁극적인 원동력은 따로 있다. 자신이 써낸 기사로 조직을, 나아가 학교를 변화시키겠다는 기사로서의 사명감. 그것이 우리가 학보를 놓지 않는 이유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박종민 전 편집국장 퇴임식

하계 워크숍

하계 MT

동계 MT

유은강 전 부편집국장 퇴임식

한 줄 인터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학보사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유경형에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르다. 한성대신문사 기자들이 직접 기자로서의 일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다.

한성대신문사에 입사한 ‘솔직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주형 “외롭고 심심한 대학생활에 한 모금 감로수가 될 것 같아서”
강예림 “방송국 떨어져서...ㅎ”
김수현 “한성대신문사라고 적혀 있는 문패를 보고 ‘아! 여기구나’라고 딱 느낌이 왔다”

김종민 “남은 학년 동안 계속 아싸로 지내게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다”

박금정 “비교과포인트 무엇? 800 포인트 무엇?”
윤희승 “세상 보는 눈을 넓히기 위해 지원했다”

입사 후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이주형 “규칙적인 음주 습관이 생겼다”
강예림 “원래 커피를 안 마셨는데

이제 커피 없으면 일이 안 된다”
김수현 “행동 할 때마다 한 번 생각하고 하는 습관이 생겼다”
김종민 “학보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보니 많이 유순해졌다”
박금정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이 늘었다. 9 to 9.”
윤희승 “신문을 읽는 마인드가 달라졌고, 필력이 확실히 늘었다”

본인이 생각해도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다면 어떨게보자.

이주형 “주옥같은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면이 부족하여 적지 않는다”
강예림 “편집국장 선출됐을 때. 솔직히 내가 될 줄 알았음^^”
김수현 “동기가 내 기사를 읽어보고 ‘재밌었다’고 말해줄 때 뿌듯

뿌듯”
김종민 “하루 만에 기사를 써냈을 때가 제일 자랑스러웠다”
박금정 “수습기사에서 정기자가 될 때까지 버텼을 때!”
윤희승 “내 이름 석 자가 박힌 기사를 볼 때마다 뿌듯하다”

퇴사 욕구 뽐뽐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주형 “신문사 사무실에서 문득 내 고향 강원도가 그리워질 때”
강예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김수현 “굳이 왜 나감?”
김종민 “기사나 취재에 난항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
박금정 “애들아 먼저 가. 나 오늘 신문사...”라고 말할 때”
윤희승 “기사가 안 끝나 밤샘 각일 때”

입사 전으로 돌아

가도 다시 학보사 기자가 될 것 인지.

이주형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속담이 있다”
강예림 “방송국 면접 안 볼래...”
김수현 “무조건 다시 할 거다”
김종민 “솔직히 고민은 좀 해보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들어오게 될 것 같다”

박금정 “비교과포인트는 필요하

니까!”
윤희승 “오더라도 한 학기 정도 높고 들어올 것 같다”

♥익스트림통학빌런 강 기자의 하루♥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마디.

이주형 “꿈과 희망의 나라 학보사로 오세요”
강예림 “수습기자 모집 마감일은 3월 16일입니다!!!(헤헤)”
김수현 “개꿀잼 인정? 어 인정~”
김종민 “학보사는 사랑입니다. 야 마도~”

박금정 “학보를 읽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윤희승 “글빨을 확실히 올리고 싶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이름 | 이주형
나이 | 23
학적 | 국어국문전공 3학년
직급 | 편집국장
특징 | 주당. 병약한 천재. 이제 떨어진 똥.

이름 | 강예림
나이 | 21
학적 | 법&정책 트랙 2학년
직급 | 차기편집국장
특징 | 왕복 5시간 통학러. 트렌디 중시★ 실세.

이름 | 김수현
나이 | 21
학적 | 한국어교육 트랙 2학년
직급 | 부편집국장
특징 | 삼척이 낳고 동해가 기른 강원도의 아들. PS 프랑수아 감자만 섭취.

이름 | 김종민
나이 | 25
학적 | 한국어문학부 3학년
직급 | 부장기자
특징 | 장거리 취재 전문. 반오십. 신문사 살림 담당.

이름 | 박금정
나이 | 22
학적 | 전자정보공학과 3학년
직급 | 정기자
특징 | 인유에 추구하는 공대생. 국문감성 편지 써 줄 남편 원함.

이름 | 윤희승
나이 | 24
학적 | 행정학과 3학년
직급 | 정기자
특징 | 군대물 빼는 중. 알고 보면 막내(aka 노예).

